

일계인(日系人 : 닛케이진)디아스포라: 초민족공동체 형성과정 연구

林 永 彦*

(e-mail: yimye@hanmail.net)

目 次

I. 문제제기	IV. 일계인(日系人)초민족공동체 형성과정
II. 일계인(日系人)의 초국적 이동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일계아메리카인 초기 민족공동체 형태
III. 일계인(日系人)의 이주과정과 역사	2. 태평양전쟁과 일계아메리카인 강제수용
1.일본인의 하와이 이주사	3. JACL의 결성과 일계아메리카인 강제수용에 대한 보상운동
2.일본정부의 일계인(日系人) 이주정책	4. 강제수용 보상운동의 성공과 민족정체성의 회복
	V. 결론 및 시사점

I. 문제제기

일본인의 해외이주 역사는 1868년(메이지유신)부터 시작되어 만주국이 성립하는 1938년경까지 하와이와 북미로 약 37만명, 중남미로 약 25만명 등 약 142만명이 해외로 이주하였다. 전쟁 전 일본인이 맨 처음 진출했던 국가는 대부분 미국 하와이지역이었으며 1898년경 미국에서 일본인 배척운동(배일운동)이 일어나 일정기간 동안 이민을 억제하기도 하였다. 일본정부의 해외이민정책은 1920년경에 재개되었으며 1921년에는 내무성 내에 사회국이 설치되어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하였고 1929년에는 척무성이 이민업무를 총괄하였다. 전

*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연구교수

후 1952년경부터 해외 이주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9년까지 40년간 일본인은 북미 14만명, 중남미로 9만명이 이주하였다. 이주지에서 태어나 현지 국적을 취득한 일계인 2-3세까지를 포함하면 미주지역 일본인 인구는 약 150만명이며 일본 외무성은 2005년도 해외거주 '일본인' 수를 약 260만명 정도로 추정한 바 있다¹⁾.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일본 외무성이 2008년도 말에 발표한 해외거주 재외방인은 1,116,993명으로 전년도 비해 2.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²⁾. 1990년 이후 해외거주 일본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1999년 이래 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를 초과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

일본에서 일계인 노동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며 1990년대에 걸쳐 급격히 증가한 결과 일본 내에서도 이들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1860년대 이후부터 존재한 일계인이란 원래 '일본에서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의 자손'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미국 하와이지역에 진출하여 대륙의 각 지역으로 이동해 나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일계인이란 일반적으로 큰 범주에서 일계아메리카인과 일계브라질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⁴⁾.

이 논문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일계아메리카인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일계아메리카인의 정의는 '일계 2세~3세 이외에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민1세, 일본과 미국이라는 이중국적자의 2세 및 일본인의 배우자인 비일계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일본국적이나 일본의 고유한 전통문화의 소유보다는 혈통 면에서 일본민족을 계승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⁵⁾. 일계아메리카인은 해외에 이주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일계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며 일계아메리카인 박물관을 중심으로 일본 내 정치세력과의 연계, 그리고 1995년 고베지진 이래 연계된 시민운동 차원의 지원활동 등 최근에는 종래의 의미와는 다른 초국적인 민족공동체 형성과 그들의 사회활동

1) 米山裕・河原典史編 (2007) 『日系人の経験と国際移動：在外日本人・移民の近現代史』人文書院、p.241

2) '일계인(닛케이진)'의 정의는 일본이외의 해외지역에 이주한 후 국적을 이탈하여 거주하는 해당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일본인 및 그 자손을 일컫는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면서 일본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인 장단기 체류자를 총칭하여 '재외방인'이라고 한다.

3)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toko/tokei/hojin/09/pdfs/1.pdf> 참조. 일본인 남녀별 분포는 1999년 이래 처음으로 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를 초과하였지만 2008년도 현재에도 여성이 전체의 51.7%로 남성보다 37,000여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渡邊 博顕 (2004) 「間接雇用の増加と日系人労働者」 『日本労働研究雑誌』 No.531/October, p.36

5) 송석원(2009) 「일본정부의 일계인(日系人) 정책-JICA의 해외일계인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p.108

에 주목하는 측면이 강하다. 초기 경제적 격차로 미국 하와이지역에 진출한 일계아메리카인 연구는 1990년 초국가시대 이후 그들과의 경제협력 강화로 일본 경제의 발전과 모국과의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민족공동체 형성의 또 다른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1886년 메이지시대 이후 일본에서 하와이로 이주한 일계아메리카인의 초기 민족공동체 형성과정, 1942년 태평양전쟁으로 인한 일계인 강제수용, 그리고 1980년대 중반이후 강제수용보상운동을 거치면서 어떠한 상반된 일계인의 민족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일계아메리카인의 이러한 민족정체성은 초국가적인 글로벌 시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하여 문헌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한다⁶⁾.

<표 1>1990년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방인(일본인)의 추이⁷⁾ (단위: 명)

연도	장기체류자	영주자	합계
1990	374,044	246,130	620,174
1991	412,207	250,842	663,049
1992	425,131	254,248	679,379
1993	432,703	254,876	687,579
1994	428,342	261,553	689,895
1995	460,522	267,746	728,268
1996	492,942	271,035	763,977
1997	507,749	274,819	782,568
1998	510,915	278,619	789,534
1999	515,295	280,557	795,852
2000	526,685	285,027	811,712
2001	544,434	293,310	837,744
2002	586,836	284,915	871,751
2003	619,269	291,793	911,062
2004	659,003	302,304	961,307
2005	701,969	310,578	1,012,547
2006	735,378	328,317	1,063,695
2007	745,897	339,774	1,085,671
2008	755,724	361,269	1,116,993

6) 임성모(2008) 「근대 일본의 국내식민과 해외이민」 『동학사학연구』 제103집, p.185

7)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toko/tokei/hojin/09/pdfs/1.pdf>, p.10 참조.

II. 일계인(日系人)의 초국적 이동에 관한 이론적 검토

초국가시대 사람의 이동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이동을 촉진하는 구조요인으로 마크로(거시적), 메조(중간), 마이크로(미시적)요인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⁸⁾. 즉 캐슬과 밀러(Castles & Miller, 2003), 파이스트(Faist, 2000)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이동은 구조화되어 마크로 요인은 마이크로 네트워크, 메조(중간자)에 의한 다양한 조직이나 기관을 통해 확대되고 지속된다는 이론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송출국에서는 이동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가정할 때 계속해서 자기 충족적으로 이주가 전개되며 수용국의 권리 획득을 위한 사회문화적 통합이나 융합, 혹은 정치적 권리획득이 다음 단계에서 계속해서 요구하게 된다⁹⁾.

그러면 마크로 요인이란 무엇인가? 먼저 마크로 요인은 각국이 놓여있는 역사,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이동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일본과 미국이라는 양국관계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가 라는 점이다. 가령 일계아메리카인의 일본으로의 본격적인 이동은 1885년 '관약이민'이 양국간 인구이동의 정책적 기점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인 계기가 일계브라질인의 지속적인 이동을 촉진시키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는 힘들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속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마이크로 요인이 필요하게 된다. 이주하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동에 대한 지향성(목표), 미국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 사회관계자본(네트워크), 문화자본(신념이나 가치관)등이 개인의 이동요건으로 고려된다. 양국의 이동정책이나 거기에 따른 사람의 이동이 어떤 기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변과 지역자체를 끌어들이면서 전개되는 이주과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이크로적인 구조요인이 반드시 필요하다¹⁰⁾.

또한 여기에도 일계아메리카인에 의한 공동체 레벨의 이주산업과 '리틀도쿄'와 같은 공동체 형성, 이동경로를 지원하는 기업의 존재, 종교나 지원센터의 존재 등 메조레벨의 구조요인이 마크로구조와 마이크로구조를 연결하는 형태로 기능함으로써 이동을 촉진하게 된다. 메조레벨의 구조요인은 외즈베렌

8) Faist, Thomas. 2000. "Transnationalization in international migration: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citizenship and culture." *Ethnic and Racial Studies* 23: 189-222

9) Faist, Thomas. 2000. *The Volume and Dynamic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Transnational Social Spaces*, Oxford University Press.

10) Castles, S. & M. J. Miller, 2003.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3rd edition), Macmillan.

(Özveren, 2004)이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거주국에서 일계인들이 구축하는 민족 공동체로 설명할 수 있다.

초기 민족공동체에 관한 연구에서 앤더슨(Anderson, 1991)은 우리가 ‘민족’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실제의 공간이 아니라 상상의 공동체, 혹은 가상공간 속의 공동체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¹¹⁾. 이후 샤프란(Safran, 1991), 톨리안(Tölölian, 1991)의 연구자에 의하면 디아스포라 민족공동체의 의미는 세계 각지에 떠도는 민족의 이산, 집산, 흠어짐, 정체성, 전통 등을 의미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초국가시대(Transnationalism)에 접어들면서 민족공동체의 의미는 종래의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연대조직과 같은 네트워크의 확대된 개념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버토백(1999)의 민족공동체의 개념은 초국가주의 현상에 의한 사람, 기관, 제도를 연결하는 복합적인 관계이자 상호작용으로 설명하고 있다¹²⁾. 윤인진(2003)¹³⁾과 최인범(Choi, 2003)의 연구에서는 민족공동체의 초기단계를 좁은 의미에서 기원지로부터 사람들의 분산, 정치적·경제적, 그리고 기타 압박이나 박해요인에 의한 비자발적 강제 이산, 민족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노력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인 논의단계도 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세계 각지에 흠어져 있는 동일 민족에 대한 애착과 연대감을 가지고 상호교류와 소통을 위한 초국적인 네트워크 구축(trans-nationalization), 모국과의 유대라는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인 민족공동체 네트워크로 확대되어 간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초국가시대 민족공동체의 개념이 좁은 의미의 장소성이라는 지리적 영역과 물리적 공간을 초월하여 개인간의 교류와 상호작용에 의한 연대감 형성과 이로 인한 민족공동체의 공간형성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민족공동체 공간네트워크의 존재는 그들 자신들이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구축한 네트워크가 일본사회에서 지역주민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미크로적인 구조요인을 제공한다. 인간의 지역간 공간이동은 중개자(기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데 이주를 통한 공동체 공간의 형성이 국경을 초월한 사회적 공간을 송출국이나 수용국 등 양쪽에 확대시켜나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체 공간의 매개기지(BASE)를 통하여 공동체네트워크에서 배제되거나 경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여 일본과 미국 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이동에 관한 구조요인들이 상호 배태되어 네트워크를 구축함

11) Anderson, Benedict(1991) *Imagined Communities*. Verso.

12) Steven Vertovec(1999) "Conceiving and researching transnationalism" in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2, No.2.

13) 윤인진(2004) 『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 출판부, pp.4-5

으로서 이주시스템이 구조화되어 일본에서 미국으로 혹은 그 반대로 국가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지속적으로 혹은 자기 충족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게 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일본사회를 떠나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일본사회는 그들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되며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거주국의 공동체공간은 자기자신의 존재영역이 탈공간적으로 국가를 초월하는 초국가적인 측면을 지니게 된다. 더욱이 최근 위성정보통신과 인터넷의 발달은 매일 양국간 실시간 정보공유와 소통이 가능하며 실질적인 이동거리는 멀지만 감각적으로 같은 한 지붕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 준다. 이처럼 초국가시대 사람의 이동은 어느 한 기점(메조, 혹은 공동체 네트워크)을 통하여 일본은 물론 미국에까지 지속적으로 연결됨으로서 새로운 민족공동체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를 제공한다.

이 논문에서는 일계아메리카인에 대하여 매크로적 의미에서 일계인 이민사를 계승하는 공동체적인 존재, 혹은 이주자의 거주지역에 기점을 둔 역사적인 존재로서 '일계인'을 포괄하는 초국적 공동체의 범위로까지 확대 해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계인의 이동에 관한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매크로적인 요인인 초기 이주사를 고찰하고 미크로적인 요인으로 일계인의 이주사에 있어서 일계인의 강제수용과 보상운동이 갖는 정치학적인 의미와 정체성의 변용, 그리고 메조레벨의 현대 일계인 공동체의 새로운 움직임에 조망하는데 있다.

Ⅲ. 일계인(日系人)의 이주과정과 역사

1. 일본인의 하와이 이주사

<표 2> 정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인의 해외이주 역사는 1868년 5월 사탕수수농장에 노동수요가 급증하고 임금이 높았던 하와이로 영국 화물선이 149명의 일본인 이민자를 태우고 요코하마항을 출발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이들 대부분은 일본 농민출신으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3년간 계약노동자로 일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정부는 도쿠가와막부에서 메이지유신정부로의 변혁기로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허가도 없이 모집하여 하와이에 이민자로서 데리고 갔다는 이유 때문에 일본정부는 '우리국민을 약탈한 해적행위이다.'라고 미국인 실업가들을 비난하였다.

<표 2>하와이 일본인 이주역사¹⁴⁾

연도	주요 내용
1868년	일본인 최초 이민 149명 하와이에 도항
1870년	하와이산 설탕 9,392톤 생산
1871년	일·포(일본·하와이)조약체결
1876년	하와이와 미국 호혜조약체결, 하와이의 설탕산업 융성
1877년	아조르와 마디라섬으로부터 포르투갈 이민자 하와이에 유입
1880년	하와이 설탕산업 31,792톤 생산
1882년	하와이 경작지 조합노동자 보급회사 창립
1884년	일본인 노동자의 하와이 이주협정체결
1887년	하와이와 미국 호혜조약 개정, 하와이 헌법제정
1890년	하와이 설탕산업 129,899톤 생산
1893년	하와이에 일본인 이민자 22,000명 상회, 하와이 왕조멸망, 재류일본인 보호를 위한 순양함 나니와 호놀룰루에 급파
1894년	청일전쟁
1897년	일본인이민의 상륙거절, 순양함나니와를 다시 호놀룰루에 급파
1898년	8월12일 아메리카의 하와이 합병
1899년	일본인이민 26,000명 최고기록, 12월 호놀룰루의 페스트유행에 의해 일본인 거주지 소각, 계약노동자입국금지령
1900년	각지에 일계인동맹파업결기, 일계인의 미국대륙이주 성행
1907년	‘배일’적 이민법실시
1909년	오아프섬의 일계인 총동맹파업, 일계인 속속 경작지를 버리고 스몰비즈니스로 전업하기 시작함
1920년	오아프섬의 일계인 총동맹파업

그러나 하와이에 간 일본 이민자들은 2년도 채 못 되어 39명이 노예취급과 가혹한 학대에 시달려 일본정부의 알선과 조정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그 다음 해에는 30명의 이민자가 3년 계약을 마치고 가혹한 학대에 못 이겨 귀국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그러나 메이지 원년 일본이민자 중 나머지 90명은 그대로 하와이에 머물렀으며 하와이에 영주한 자의 최초의 집단이 되었다. 메이지원년에 일본 이민은 메이지신정부의 승인 없이 개인알선에 의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패로 끝났지만 1876년 하와이 미국병합에 대한 기대로 투자가 증가하고 1884년에는 일본인노동자의 대량이민이 유입되었다. 1885년 1월에는 제1회 ‘관약이민’으로서 943명(남성 676명, 여성159명, 어린이 108명)이 기선도쿄시호로 요코하마항을 출항하여 2월에 호놀룰루에 도착했다¹⁵⁾.

14) 앞의 책, pp.218-219 참조하여 필자작성

15) 일본의 이민정책은 메이지원년 실패에 따른 해외이민금지(1868-1885), 하와이 ‘관약이민’(1885-1894)으로 재개되었다. 일본의 해외이민은 이 ‘관약이민’시기에 공식적으로 개화되었으며 ‘회사이민(1894-1908)’, ‘자유이민(1908-1924)’로 이어졌다.

1885년 메이지정부가 추진한 ‘관악이민’은 일본농촌의 궁핍화에 따른 타개책의 하나였다. 당시 하와이는 미국자본의 영향으로 제당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노동력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였고 1871년부터 일본과 통상조약을 맺고 있던 하와이 왕국이 일본인 이민을 거듭 요구하였기 때문에 1884년에 10년간의 도항조약이 체결됨으로서 ‘관악이민’이 개시되었다. 당시 하와이에는 캐나다인 5만명을 제외한 체류외국인은 5,000명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주로 동양에서는 중국인, 일본인, 조선인, 유럽에서는 포르투갈인, 에스파냐인, 이탈리아인, 러시아인, 중앙아메리카로부터는 푸에르토리코인, 아메리카 속령의 필리핀인 등이 유입되었다¹⁶⁾.

그러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890년에는 하와이 거주 외국인이 출신 국가도 다양화되었으며 하와이 원주민을 제외한 약 4만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이민자들 중 중국인이나 일본인들은 아내나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남녀비율이 다른 국가보다 훨씬 낮았다.

<표 3>하와이 거주국가별 인구구성 분포(1890년 말 기준)¹⁷⁾

인종	1890년				1900년 ¹⁸⁾
	남성	여성	합계	남녀비율(%)	
하와이 원주민	18,364	16,072	34,436	46.67	29,799(19.3%)
혼혈인	3,085	3,101	6,186	50.13	7,857(5.1%)
하와이 출생 외국인	3,909	3,586	7,495	47.85	백인계 28,819(18.7%)
아메리카인	1,298	630	1,928	-	
영국인	982	362	1,344	-	
독일인	729	305	1,034	-	
프랑스인	46	24	70	-	
포르투갈인	4,770	3,832	8,602	44.55	
노르웨이인	155	72	227	-	
폴리네시아인	404	184	588	-	
중국인	14,522	779	15,301	5.09	25,767(16.7%)
일본인	10,079	2,281	12,360	17.40	61,115(39.7%)
기타	371	48	419	28.97	648(0.5%)
합계	58,714	31,276	89,990	평균 34.75	154,001(100%)

16) 家仲茂 (1943) 『ハワイの歴史と風土』生活社刊, pp.201-202

17) 家仲茂 (1943), 앞의 책, p.316 참고로 필자작성. 중국인이 하와이 및 미국에서 배척당한 하나의 원인으로서는 중국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족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와이에서 각 국가별 여성의 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중국이고, 다음이 일본인이다. 이 자료는 일본의 관악이민 재개직 후 조사이며 여성이 적은 이유는 이민자 중 여성이 남성의 4분의 1로 제한되어 있었던 사정으로 풀이된다.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1868년 146명이 하와이로 이주한 이후 일본과 하와이간의 '관약이민'의 성립으로 1886년부터 이민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37년에 이미 하와이에는 일본인 15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하와이 체류 일본인¹⁹⁾

연도	일본인 체류자 수	하와이 총인구수
1868년	146	-
1884년	116	80,578
1886년	1,949	-
1890년	22,360	89,990
1896년	23,329	109,220
1900년	61,115	154,001
1913년	83,100	191,909
1914년	91,490	-
1915년	97,000	-
1916년	102,479	-
1917년	106,800	-
1918년	110,000	-
1920년	112,221	255,912
1921년	113,399	-
1922년	115,967	-
1923년	118,832	-
1924년	125,368	-
1925년	128,068	-
1926년	192,991	328,444
1927년	132,242	333,420
1928년	134,600	348,767
1929년	137,407	357,649
1930년	139,631	368,336
1931년	143,754	375,211
1932년	146,189	380,507
1933년	147,507	380,211
1934년	148,024	378,948
1935년	148,972	-
1936년	149,886	-
1937년	151,141	-

일본인의 하와이 이민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893년에는

18) 앞의 책, p.315 참조 필자 작성

19) 앞의 책, p.334참조하여 필자 작성

하와이에 일본인이 약 22,000명, 1894년까지 29,032명이 체류하고 있었다. 그 후 1895년에는 사탕수수밭 농장주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1899년 26,000명의 일본인 계약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1884년부터 1900년대 사이에 약 5만명의 일본인 이민노동자가 이주하였다. 그리고 이무렵 노동계약이 끝나고 처음으로 자유로운 몸이 된 수천명의 일본이민자들은 더 많은 수입을 기대하여 하와이를 떠나 미국대륙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1902년부터 1907년까지 약 5년간 4만명의 일본인이 대륙으로 이주했다. 이렇게 시작된 일본인노동자의 캘리포니아 대이동은 미국각지에서 ‘황화’에 대하여 일본인 노동자의 대륙 쇄도에 의해 초래되는 미국인 생활수준의 저하와 생활불안을 이유로 대륙이동정지를 목적으로 한 ‘배일’법안이 미국 국회하원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일본인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배일’법안은 예정대로 1907년 미국국회를 통과하여 1907년에 실시되었다. ‘배일’ 이민법의 영향으로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에 대한 반격으로 1909년 하와이에서 획기적인 대동맹파업이 발생했다²⁰⁾. 파업이후 하와이의 일본인 민족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와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면서 일계인은 사탕수수밭을 버리고 떠나는 자가 점점 증가하였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 호놀룰루나 대도시주변에 집거하면서 스몰비즈니스를 시작했다. 1920년경에는 오아프섬의 일본인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과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여 파업을 일으켜 관철시켰다. 이러한 일로 일본인과 미국인과의 거리는 상당히 멀어졌지만 일계인사회도 점차 질적 변화를 거듭하면서 최초 하와이에 도착했을 때에는 단시간 내에 돈을 모아 귀국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점차 하와이에 정착하여 생활하기 시작했다.

일본인과 미국인과의 갈등은 결국 1924년 일본인 이민을 봉쇄하는 ‘배일이민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인과 같이 ‘귀화 불능 외국인’으로 취급당한 일본인은 그 후 1952까지 미국이민이 전면 금지되었다.

2. 일본정부의 일계인(日系人) 이주정책

일본정부는 1980년대 이후 일본 내 모든 일계인을 외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신변보호, 재산상의 안전, 일본국적자가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과 의무수행 등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또는 비공식적으로 이들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²¹⁾. 일본정부는 일계인에게 특별한 법적, 혹은 제도적 특혜보다는 외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얼마간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비공식적인 특혜를 주고 있다. 일본정부는

20) 1924년 미국은 일본인 이민을 전면금지하는 ‘배일이민법’을 공식적으로 공포하여 이후 일본의 해외이민은 브라질과 만주로 향하는 ‘국책이민(1925-1945)’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21) 채경석(2006) 「재외동포의 민족공동체구성원 지위에 관한 연구」 『아시아연구』 p.183

일계인(日系人)3세까지 일본 내에 거주할 때 자유롭게 취업비자(1년~3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들이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경우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류연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²²⁾. 일본정부는 일계인의 일본 내 사회적응과 정착을 돕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그들의 사회활동을 간접 지원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르고 있다. 즉, 민간차원에서 일계인의 사회진출과 역할증진, 일계인사회의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해 일본 내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일계인과 현지 진출국과의 국제적인 외교마찰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일계인 관련 교류 및 지원업무를 민간단체에 위임하고 간접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 일계인 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총괄하고 있는 것이 재단법인 해외일계인협회이다²³⁾. 1957년 이후 매년 일본국내에서 해외일계인대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1968년에는 하와이, 2007년에는 상파울로에서 개최되었다. 1964년 대회부터 전국지사회가 참여하였고 1965년 6회 대회부터 일본 황족이 참가하는 등 국내외 일계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해외일계인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과 후원을 하고 있는 기관은 국제협력기구(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며 대표적인 사업으로 LA에 있는 ‘전미일계인박물관’, 브라질 상파울로에 있는 ‘브라질일본이민사료관’에 필적하는 일계인들을 위한 ‘해외이주자료관(Japanese Overseas Migration Museum)’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1974년 8월 국제협력 사업단을 발족하여 일본국내에서는 해외이주, 해외에서는 재외방인과 일계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해외이주 홍보, 상담, 알선, 도항지원, 이민자녀의 본국연수지원,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주자의 농업기술지도, 기술이전과 전수, 일본어교육 및 의료지원, 전화설치 등 생활편의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²⁴⁾.

일본의 이주정책은 이민1세를 대상으로 한 국가정책의 하나로 송출한 중남미 이민자에 대한 노후대책, 세계 각국에 진출한 일계인과의 경제협력 강화로 지역발전과 본국과의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제도적 장치마련에 힘쓰고 있다. 특히 JICA를 중심으로 일계연수, 일계사회리더육성사업, 일계유학생중앙연수회를 지원하여 일계인사회에 일본어와 일본문화의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JICA의 지원사업은 중남미지역뿐만 아니라 북미, 아시아, 유럽 등지로

22) 최우길(2005) 「한민족 공동체와 재외동포 ‘새로운 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시론」 『2005년도 개천절 기념학술회의 발표논문집』 p.29

23) 앞의 논문, pp.112-114참조

24) 손기섭(1999) 「한민족네트워크공동체의식조사」 한림대학교 민족통합연구소, p.153

확대하여 일계인 지도자 양성과 일계인 협회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일본의 이미지 제고, 일계인 자녀 모국연수지원 및 일본 내 일계인 노동자 처우개선 등 21세기 초국가시대 일계인 민족정체성 회복과 공동체 형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V. 일계인(日系人)민족공동체 형성과정

1. 일계아메리칸인 초기 민족공동체 형태

일본인의 미국이민은 메이지시대가 시작되기 전인 1861년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미국의 경제발전과 일본의 경제개발을 배경으로 1880년경부터 이민자가 급증하였다. 처음 도미한 일본인은 어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본 내 경제적 격차와 불경기로 인하여 미국에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이주하였다. 또한 징병으로부터 해방되거나 유학으로 반정부활동의 단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일본인들이 도미하기 시작했다.

1800년대 경 일본국내는 불경기, 지세의 중과세, 흉작과 악조건 등 상업경제로 변모하기 시작한 사회경제적 배경 때문에 농촌으로부터 도시에 진출한 구직자 가운데 잉여노동력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었다. 처음 그들은 당시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미국 무역상인의 계약노동자로 고용되어 하와이에 취업하게 되었다. 최초 일본정부로부터 정식 이민으로 인정받은 '하와이관역이민'은 하와이 이민당국이 일본 현지에서 이민자를 모집하여 1885년 2,000명이 이주하였으며 10년간 약 3만 명의 일본인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취업하게 되었다²⁵⁾.

1900년대에 들어서면 미국 본토에 이주하는 이민자들이 증가했지만 일본 이민자들 역시 당시에는 돈을 벌기 위한 '외국인 노동자'로서 어느 정도 돈을 모으면 그것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었다²⁶⁾. 당시 일본인 이민자가 집중된 지역은 미국 서해안 지역이었다. 그 이유는 일본이주가 시작되기 전까지 캘리포니아의 경제는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노동력은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훨씬 이전부터 동양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한때 중국인의 학살로까지 이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1880년대는 중국이민단속법이 제정되어 노동력 부족현상을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일본인이주자로 대체하게 되었다.

1890년대에는 이민보호법이 제정되어 해외이민도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25) 水島瑠美 (2005) 『日系アメリカ人のアイデンティティ』卒業論文、pp.4~5

26) 飯野正子 (2000) 『もう一つの日米関係史』有斐閣、pp.10~17

그때까지 일본정부가 담당했던 이주업무를 일본인 이주알선업자가 담당하게 되었다. 당시 일본인이민자들이 종사했던 직종은 가내노동자, 서양요리점 점원, 농업이나 제재소의 노동자, 철도건설노동자 등이었다. 이들 직업은 영어 능력의 차이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있었지만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았다.

190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으로부터의 미국이민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민 초기에는 값싼 노동력으로서 일본인들이 환영받았지만 점차 유럽에서 건너 온 구이민자들이 일본인 신이민자들에 대하여 자신들과는 다른 문화배경, 미국개척자의 소멸(토지제한), 직업의 부족 등으로 혐오감을 가지고 점차 배일 정책을 펼쳤다. 1908년 미국정부는 일본인 이민자의 미국입국을 금지하는 ‘미일신사협정’을 체결하고 1913년에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귀화불능외국인’의 토지소유, 임차, 양도를 제한하는 ‘외국인토지법’을 제정하였다. 이 협정에 의해 일본인의 미국 이민은 금지되었지만 이미 미국에 노동이민으로 정착한 일본인은 아내나 가족을 초청이민으로 불러들일 수 있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일계인의 미국 정착이 시작되었다. 일계인들은 정착지에서 학교, 교회, 사원, 부인회 등 일계인 생활의 중심이 되는 단체나 조직을 만들었으며 마을회와 민족공동체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일계인공동체는 과거 배일운동을 교훈삼아 공동대처방안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재미일본인연합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워싱턴 주에서도 ‘일본인회’가 결성되어 일본인이민공동체의 강한 단결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일본인공동체의 결속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일본어신문발행이었으며 이것은 일본정보의 공유와 일본인이민사회의 규범을 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태평양전쟁과 일계아메리카인 강제수용

일계아메리카인공동체가 이민사회에서 서서히 자리 잡아 나갈 무렵 태평양전쟁의 돌발로 일계인 사회도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하자 미국정부는 일계인 1세의 저축을 동결하고 자산몰수, 강제수용, 국외추방을 시행하여 일계인 사회 지도자 약 1,291명을 강제구인하였다²⁷⁾. 체포된 일본인들은 당시 일계인 단체의 이사 및 교육자, 종교가 등 일계인사회지도자 중심으로 전미 26개소의 수용시설에 이송되었다. 1942년에는 일계인 1세, 미국시민권자인 일계인 2세 등 약 11만명의 일계아메리카인들이 강제퇴거 또는 강제수용 당했다. 1942년 2월 19일 루즈벨트 미국대통령은 대통령행정명령 9066호를 하달하고 특정지역에서 주민을 배제하는 권한을 육군 장관 및 각 사령관에게 주었다. 미국의회는 같은 해 3월 군 명령에 응하지

27) 유기식(1999) 「제2차 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 사회구조의 변화」 『경북사학 제22집』 p.99

않는 자에게 벌칙을 과하는 공법77-503호를 가결하였다.

당시 일계인 12만 6천 명 중 서해안 지역에 거주하던 약 11만 명의 일계인을 강제 수용하는 것은 대단히 큰 프로젝트로 존 데이비드 서부방위사령부사령관은 당초 일계인을 내륙부에 자진 퇴거토록 했다. 약 1만명의 일계인이 여기에 응했지만 약 2,000명 정도가 퇴거하는 선에 머물렀다. 여기에 존 사령관은 1942년 3월 서해안지역으로부터 모든 일계인을 강제 퇴거하는 조치를 하달했다. 강제 수용명령은 미국시민권자까지 포함하여 전일계인에 대하여 내려졌다. 조금이라도 일계인의 피가 섞여있으면 모두 일계인으로 취급받아 10여 곳의 수용소에 수감되었다²⁸⁾.

<표 5> 1942년 일계인 수용소 및 수용인원²⁹⁾

일계인 수용지역	수용인원(명)
콜로라도주 그라나다	7,318
아리조나주 기라리버	13,348
와이오밍주 허트마운틴	10,767
아칸소주 제롬	8,497
캘리포니아주 맨zana	10,046
아이다호주 미니도카	9,397
아칸소주 로와	8,475
캘리포니아 톨레이크	18,789
유타주 토파즈	8,130
아리조나주 포스턴	17,814
합계	112,581

주) 상기 10개 수용소 이외에 수백명 규모의 작은 수용시설이 있었음.

상기 <표 5>을 보면 당시 약 11만 명의 일본인들이 캘리포니아와 아이다호, 유타, 아리조나, 와이오밍, 콜로라도, 아칸소 등지에 있는 10개의 집단수용소에 약 1만명씩 2년 6개월간 수감되었다. 이들 중 약 1,500명은 미군에 자원함으로써 풀려났고 1943년에는 일계인 2세들로 구성된 442전투부대가 창설되어 미국에 대한 충성심 서약의 심사 통과를 조건으로 완화조치를 시행하였다. 일계인 2세들은 포획문서의 번역, 포로심문 통역 등으로 미군에 공헌하면서 충성심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미군에 자원함으로서 일계인 2세의 충성심을 보여주었고 전후 일계인들이 미국사회에서 인정받는 기틀을 마련하였다³⁰⁾.

28) 김일구(2006) 「역사의 재구성: 일본계 미국인과 캐나다인의 구금에 대한 기억과 치유」 『현대영어영문학』 p.48

29) 岡部一明 (1991) 『日系アメリカ人強制収容から戦後補償へ』 岩波書店、pp.8~9

30) Masayo, Duus(1987) *Unlikely Liberators: The Men of the 100th and 442nd*,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46년 일계인 강제수용이 종료된 후에도 배일운동에 의해 멸시와 차별을 당했던 일계인 1세들에게도 1952년 이민법이 개정되어 시민권취득시험에 의해 시민권을 정식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전쟁 전 취직차별에 시달려야 했던 일계인들은 태평양 전쟁이 끝난 후 미국사회에서 인종차별을 이유로 일계인에 대한 취직난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으며 미국사회에 급속히 동화되기 시작하였다. 반면 일계아메리카인 사회의 세대간 갈등은 확대되었으며 1930년대 초반 일계인 1세가 주도했던 '본국지원운동'이나 '애국운동'은 급속히 약화되고 1940년에 들어서면 JACL을 중심으로 일계2세의 '미국화'전략이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1954년 몽고메리 시영버스 보이콧으로 시작된 흑인 공민권운동은 63년 워싱턴에서 20만명 대행진으로 최고조에 달하면서 64년에는 흑인해방의 기초인 '공민권법'이 성립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는 미국 각지의 대도시 슬럼에서 폭동이 발생하고 '블랙파워'의 흑인 내셔널리즘 운동을 대두시켰다. 이러한 공민권운동의 영향으로 1965년 미국대통령 행정명령11246호는 연방정부와 관련 민간기업과의 적극적인 차별시정조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68년 이중언어 교육법은 공립학교에서 민족어에 의한 교육을 탄생시켰으며 65년 이민법은 종래의 인종차별적인 이민의 틀을 깨고 아시아, 중남미지역 등으로부터 대량이민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일계인의 급속한 미국사회로의 동화추세 속에서 1960년대 흑인들에 의해 주도된 공민권운동은 일계인 3세들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를 가져다 주었다. 일계인의 보상운동 기원은 1960년대 아프리카계 아메리카인의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운동은 미국의 인종차별의 역사를 바로잡고 마이노리티에 대한 새로운 의식과 각성을 출현시켰다. 이러한 운동은 다른 마이노리티들, 즉 아메리카 원주민, 라티노(중남미인계), 아시아인계에게까지 점차 확대되었다.

3. JACL의 결성과 일계아메리카인 강제수용에 대한 보상운동

1970년대 캠퍼스에서 시작된 아시아계 미국인운동은 각 민족의 지역사회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당시 미국에는 '차이나타운', '리틀도쿄', '일본마을' 등 아시아계 지역사회가 형성되었다. 이들은 일본인회나 마을회를 중심으로 한 일계1세의 조직이나 일계아메리카인시민연맹(JACL: Japanese American Citizen's League)을 중심으로 한 일계2세의 조직과는 달리 진보적인 운동단체였다. 1970년대에는 일계아메리카인시민연맹(JACL)전국대회에서 강제수용에 대한 보상요구를 결의하였다. 제안자는 샌프란시스코 일계인 활동가 에디슨 우

노로 금전적인 보상이라는 개념을 주장하며 4억 달러의 보상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모든 마이노리티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민족교육센터, 민족박물관 등의 건설에 사용한다고 발표하였다.

1970년대 중반 젊은 일계3세들이 주축이 된 JACL는 일계인 강제수용문제에 대한 운동을 강화시켜 나갔다. 1976년 클리포드 우에다가 JACL전국보상위원회 의장에 취임하면서 일계3세 활동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미국정부에 대한 보상요구운동이 본격화 되었다. 그들은 1978년 4월 25,000달러의 개인보상을 골자로 한 운동방침을 내걸고 같은 해 8월 전국대회에서 보상법안성립을 지향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당시 JACL은 미국 내 회원 26,000명, 지부 120개소로 일계사회 최대의 정치력을 가진 조직이었다. 1979년 2월에는 본격적인 의회활동에 대한 홍보가 시작되어 JACL의 활동가인 마츠이 미네타 하원, 이노우에 마츠나가 상원의원 등 일계아메리칸인 4명의 의원들과 면담하였지만 보상요구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성사되지는 못했다. JACL는 일계의원들의 충고를 기본적으로 받아들여 먼저 의회에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청회 및 조사활동을 벌이고 그 보고서에 의해 보상법안을 만드는 2단계작전의 방침을 정하였다. 79년에는 '전시시민전주수용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이듬해 7월에 가결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 마이노리티에 대한 권리의식이 싹트면서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미국정부의 일본인 강제퇴거와 수용정책에 대하여 일계인 2세들이 헌법위반으로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게 되었다. 1981년 9월 워싱턴에서 최초의 공청회가 열린 이후 미국전역 10개 도시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550여명이 증언하였다. 보상배상실현전미연합(NCRR)은 공청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여 수용체험자들이 증언하도록 캠페인을 강화했다. 공청회 초기 일계인1세~2세들은 수용소에서의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미국에의 불충성에 따른 불이익 때문에 증언에 회의적이었지만 점차 공청회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두려움들이 사라졌다.

1983년 2월 보상조사위원회는 '부정된 개인의 권리'라는 보고서를 미국의회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 보상요구의 주장을 인정하게 되었다. 미국정부는 일계인을 강제 수용하는 군사적 필요는 당시 존재하지 않았으며 수용은 '인종편견, 전쟁히스테리, 정치적 리더십의 실패'에 의해 발생한 불행한 일로 국가에 의한 사죄, 수용관계의 법률 및 명령으로 기소된 자들의 특사, 실직한 공무원의 복권, 수용에 관한 교육을 위한 기금설립, 생존자 1인당 2만달러 보상 등을 권고했다. NCCR나 일계인 2세를 중심으로 한 일계아메리칸인 보상전미평의회(NCJAR)가 보상운동을 전개했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JACL은

1982년 입법화교육위원회를 설립하여 일계인 야스이 의장을 중심으로 미국의 회원들에게 전방위적인 로비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전미일계인 단체 지부를 통하여 지방선출 의원에 대한 로비활동을 강화시켰다. 그 결과 일계인 사회의 인맥과 지위를 동원하고 다양한 단체, 시의 회, 시장, 직업조합, 노동조합, 인권단체로까지 지원활동을 위한 네트워크가 확대되었다. 마침내 1988년 4월 20일에 미국 상원에서 법안 1009호로 가결되고 8월에는 양원협의를 의한 법안 일원화가 진행되어 8월 10일에 성립된 '시민적 자유법'은 공법 100-383의 제2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대통령의 서명을 받게 되었다. 이듬해인 1989년 11월에는 3년 내에 강제수용에 대한 보상을 완수한다는 계획이 입법화되었다. 그리고 1990년 10월 이후 일계인 고령자부터 보상지불이 시작되었다³¹⁾.

4. 강제수용 보상운동의 성공과 민족정체성의 회복

일계인의 강제수용 보상운동의 가장 큰 성공요인은 JACL나 NCCR의 시민운동과 정치적인 파워, 그리고 보상의 논리로서 '이것은 일계인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이다.'라는 '시민적 자유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1980년대 이후 지속된 일계아메리카인 사회의 강제수용에 대한 보상운동이 일단락 되었다.

재판에서 일계아메리카인들이 승소하게 되면서 미국정부의 사죄와 보상금 지급으로 종래 스스로의 자괴감에서 벗어나 일계인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다. 또한 일계인의 보상운동은 미국 내 다른 마이노리티 운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다른 마이노리티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일계인 운동은 미국 마이노리티 전체의 운동의 흐름 속에서 발생하였으며 흑인공민권운동과 인디언보상운동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인디언은 과거 수년간 미국의 침략을 받아 인디언 전용 거주지에 머물렀으며 그에 대한 보상운동이 1946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이러한 보상운동의 성과와 1980년대 이후 다문화주의 추세에 힘입어 일계인들은 점차 다른 마이노리티 집단과도 공동연대를 구축하여 인종차별에 맞서는 '엘로우 파워'를 조직하여 아시아계를 응집시키는 역할에 앞장섰다.

미국 내 제3세계 시민으로서 '일계인'임을 자각하게 된 일계3세들에게 강제수용소의 역사는 그들의 정체성과 민족공동체 형성의 중요한 골격을 제공하였다. 일계사회에서 3세들의 반란은 과거 역사와의 단절을 의미했다. '배일'의 멸시와 박해 속에서 견디어 온 일계1세와 제2차세계대전 중 수용소에서 자란

31) 앞의 책, pp.51-52

일계2세들에게 미국사회에 대한 반향은 생각조차 하기 힘든 것이었다. 그러나 새롭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각하게 된 일계3세들의 입장은 강제수용에 대한 공통적인 억압의 역사를 포함하여 미국에 대한 격렬한 저항과 고발을 개시하여 '순종적이고 조용한 일계인'의 이미지를 탈피하였다. 오늘날 일계아메리카인 공동체의 위상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강제수용은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계 1세~2세의 부모세대들이 강제수용 중에 정체성을 '미국에 충성하는 미국시민이다'라고 주장한 것과는 반대의 벡토르로 일계3세들은 수용체험으로의 회귀에 의한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21세기 초국가시대 일계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민족공동체의 공간은 인종의 도가니인 북미이며 타민족과 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일본이라는 정체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탈민족화된 일계아메리카인 정체성은 일본으로 회귀하려는 민족정체성을 지향하기 보다는 북미에서 그들이 구축하고 재민족화한 또 하나의 미국속의 작은 일본임과 동시에 제3세계의 일본이라는 민족공동체 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초국가시대 교통통신의 발달로 국제이동이 증가하면서 관심이 증폭되어 온 일계아메리카인의 이주사와 민족공동체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886년 메이지유신 이후 시작된 일본인의 하와이 진출과 이주역사, 그리고 1924년 미국의 '배일이민법' 제정에 따라 일본인의 이주는 남미, 특히 브라질로의 이민경로가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1945년 전쟁전후 해외로 이주한 일본인의 귀국자 수는 650만명에 달하며 해외이민이 재개된 것은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의해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게 된 1952년 이후이다.

이 연구에서는 일계인이란 주로 1868년 메이지시대 이후 해외에 이주한 이민자들로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일계아메리카인 민족공동체의 형성과정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일본 근현대 이민사에서 일본 이민자들이 왜 하와이와 북미의 미국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왔으며 이주의 주요 요인들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마크로, 메조, 마이크로적인 요인을 분석하고 현지 일계인 민족공동체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음 세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1885년 메이지정부가 추진한 이주정책인 '관약이민'으로 일본인의 하와

이 이주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으며 1900년대 하와이에서 미국대륙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위협을 느낀 백인들에 의해 ‘황화’와 ‘배일법안’으로 차별과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계아메리카인들은 차별과 박해에 맞서 정착지에서 학교, 교회, 사원, 부인회, 마을회 등 일계인 생활세계의 중심이 되는 단체와 조직인 민족공동체를 조직하였다. 일계인 민족공동체는 과거 배일운동을 교훈 삼아 공동대처방안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재미일본인연합회의’를 결성하거나 워싱턴 주에서도 일본인회를 결성하여 일본인 민족공동체의 강한 단결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일본인 민족공동체의 결속에 큰 역할은 한 것은 일본정보의 공유와 일본인이민사회의 규범을 규정하는 역할을 담당한 일본어신문발행이었다.

둘째,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촉발되어 1942년 강제수용 당한 일계아메리카인들은 수용소에서 극심한 인종적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였고 일계인 1-2세들은 그들의 정체성에 침묵을 강요당하였다. 그러나 1952년부터 샌프란시스코조약 이후 아시아계가 미국인으로 귀화할 수 있게 되었고 1965년 미국 이민법개정으로 아시아계 이민자에 대한 쿼터제 철폐로 평등권과 자유를 존중받았다. 이후 1988년부터 일계3세 중심으로 구성된 일본계미국인시민연맹(JACL: Japanese American Civil League)이 주도하여 시민법안(Civil Liberties Act)이 성립되었으며 일계인 강제수용에 대한 보상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었다. 이 시기에 일계인은 수용소에서 미국인임을 강요당하는 탈민족(de-ethnification)과 JACL의 보상운동으로 촉진된 일본인으로의 재민족화(re-ethnification)를 경험하게 되는 정체성의 혼란기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1988년 입법화된 시민법안, 즉 강제수용보상운동에 대한 승리는 일계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일계아메리카인 민족공동체는 일본계라는 공통의 수용소경험과 시민운동을 통해 변형되어 새롭게 체현된 공동체를 창출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초국가시대 일계인은 일본으로 회귀하려는 민족공동체를 지향하기 보다는 탈영토화된 형태로 그들이 북미에서 새롭게 구축하고 재민족화한 또 하나의 미국속의 작은 일본임과 동시에 제3세계의 일본이라는 초민족(trans-ethnification) 형태의 민족공동체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초국가시대 민족공동체 공간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일계인들이 메이지시대 이후 하와이와 미국대륙에 진출하여 현지에 건설한 민족공동체의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향후과제는 일본정부가 주도한 1990년대 일계인 유입정책 결과 형성된 일본 내 ‘일계브라질인’ 민족공동체를 중심으로 초국가시대 민족공동체의 존재양상과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参考文献】

- 김일구(2006) 「역사의 재구성: 일본계 미국인과 캐나다인의 구금에 대한 기억과 치유」 『현대영어영문학』.
- 임성모(2008) 「근대 일본의 국내식민과 해외이민」 『동학사학연구』 제103집.
- 유기식(1999) 「제2차 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 사회구조의 변화」 『경북사학』 제22집.
- 윤인진(2004) 『코리아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 출판부.
-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toko/tokei/hojin/09/pdfs/1.pdf>.
- 손기섭(1999) 「한민족네트워크공동체의식조사」 한림대학교 민족통합연구소.
- 송석원(2009) 「일본정부의 일계인(日系人) 정책-JICA의 해외일계인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 채경석(2006) 「재외동포의 민족공동체구성원 지위에 관한 연구」 『아시아연구』.
- 최우길(2005) 「한민족 공동체와 재외동포 ‘새로운 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시론」 『2005년도 개천절 기념학술회의 발표논문집』.
- 米山裕・河原典史編 (2007) 『日系人の経験と國際移動：在外日本人・移民の近現代史』 人文書院.
- 家仲茂 (1943) 『ハワイの歴史と風土』 生活社刊.
- 飯野正子 (2000) 『もう一つの日米關係史』 有斐閣.
- 水島瑠美 (2005) 『日系アメリカ人のアイデンティティ』 卒業論文.
- 岡部一明 (1991) 『日系アメリカ人強制收容から戦後補償へ』 岩波書店
- 渡邊博顯 (2004) 「間接雇用の増加と日系人労働者」 『日本労働研究雑誌』 No.531/October.
- Anderson, Benedict(1991) *Imagined Communities*. Verso.
- Castles, S. & M. J. Miller, 2003.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3rd edition), Macmillan.
- Faist, Thomas. 2000. "Transnationalization in international migration: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citizenship and culture." *Ethnic and Racial Studies* 23.
- Faist, Thomas. 2000. *The Volume and Dynamic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Transnational Social Spaces*, Oxford University Press.
- Faist, T. & Özveren eds., 2004, *Transnational Social Spaces: Agents, Networks and Institutions*. Ashgate, Aldershot.
- Masayo, Duus(1987) *Unlikely Liberators: The Men of the 100th and 442nd*, University of Hawaii Press.
- Steven Vertovec(1999) "Conceiving and researching transnationalism" in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2.

要 旨

本研究の目的は超国家時代日本の生活世界の中で注目されてきた日系アメリカ人ディアスポラの初期移住史と民族共同体の形成過程を探ることである。したがって、日本近現代移民史の中で日本移民者たちがどのようにしてハワイとアメリカの西海岸に集中してきたかについての移住の諸要因を分析し、現地日系人共同体の在り方がどのような過程を通して形成されたかを歴史的な観点から分析を行った。

全体的な研究の結果をまとめれば、次の通りである。

第一に、1885年から明治政府が推進してきた移住政策である ' 官約移民 ' によって日本人のハワイ移住が急激に増加した。1900年代に入ってからハワイではアメリカ大陸への日本人の進出に対する脅威を覚えた白人たちによって ' 黄禍 ' と ' 排日法案 ' によって日系人は差別と蔑視を受けることになる。しかし、日系人共同体はこのような排日運動の共同対処方案の一つとしてサンフランシスコで ' 在米日本人連合協議会 ' を結成し、ワシントン州でも ' 日本人会 ' が結成され日系人共同体の強靱な団結力を見せた。

第二に、1941年代日系人の強制収容所の収監と1988年日本系アメリカ人市民連盟(JACL: Japanese American Civil League)の主導で市民法案(Civil Liberties Act)が成立し、日系人たちは収容所でアメリカ人であることを強要される脱民族化(de-ethnification)とJACLの補償運動で促進された日本人としての再民族化(re-ethnification)を経験する混乱期を迎えた。

第三に、1988年立法化された市民法案、すなわちアメリカ政府に対する強制収容補償運動における勝利は日系アメリカ人民族共同体が日本系という共通の収容所経験と市民運動を通して新たに体现された共同体を創出させた。これは日系人共同体が脱民族化と再民族化の過程を通してアメリカの中の小さい日本であると同時に第3世界の日本である超民族化(trans-ethnification)形態の民族共同体を形成したことを意味する。

キーワード： 超国家時代、日系人共同体、脱民族、再民族、超民族、市民法案、
移住政策、強制収容補償運動、ディアスポラ

투 고 : 2010. 5. 31
1차 심사 : 2010. 6. 12
2차 심사 : 2010. 6. 26